

보도시점 2026. 8. 14.(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6. 8. 13.(목)

## 국립공원에 남은 광복의 기억... 선열의 뜻과 역사를 품다

- 광복절 맞아 국립공원에 남은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가 담긴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에는 수천 년 우리 역사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 예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흔적이 함께 남아 그 흔적이 바위글씨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각문, 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새긴 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고, 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 3·1운동에 관한 바위글씨가 남아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전해준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의 석굴암은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긴 은신처로 알려진 곳으로, 해방 후 다시 이곳을 찾은 김구 선생이 남긴 친필은 오늘날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된다.

국립공원에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남아 있으나, 야외에 노출된 문화자원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단은 2024년에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의 3차원(3D) 디지털 기록자료를 구축하고, 2026년에는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각문에 대한 디지털 기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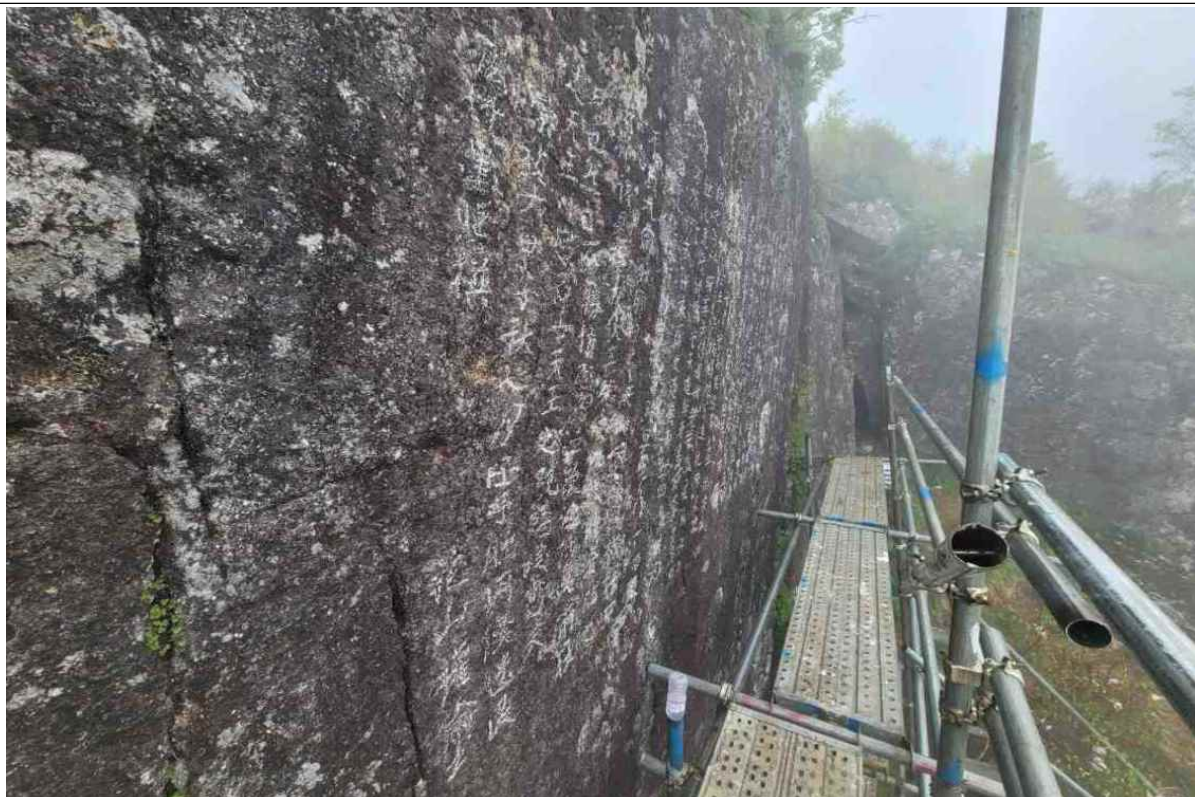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선열들의 뜻과 우리 민족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 속에 담긴 독립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지리산 천왕봉 독립염원 바위글씨 자료 설명.
3.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자료 설명.
4. 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자료 설명. 끝.

|       |                 |     |     |                    |
|-------|-----------------|-----|-----|--------------------|
| 담당 부서 | 국립공원공단<br>문화자원부 | 책임자 | 부 장 | 김보현 (033-769-9461) |
|       |                 | 담당자 | 주 임 | 강시내 (033-769-9485) |





설명: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정상 일원 독립염원 바위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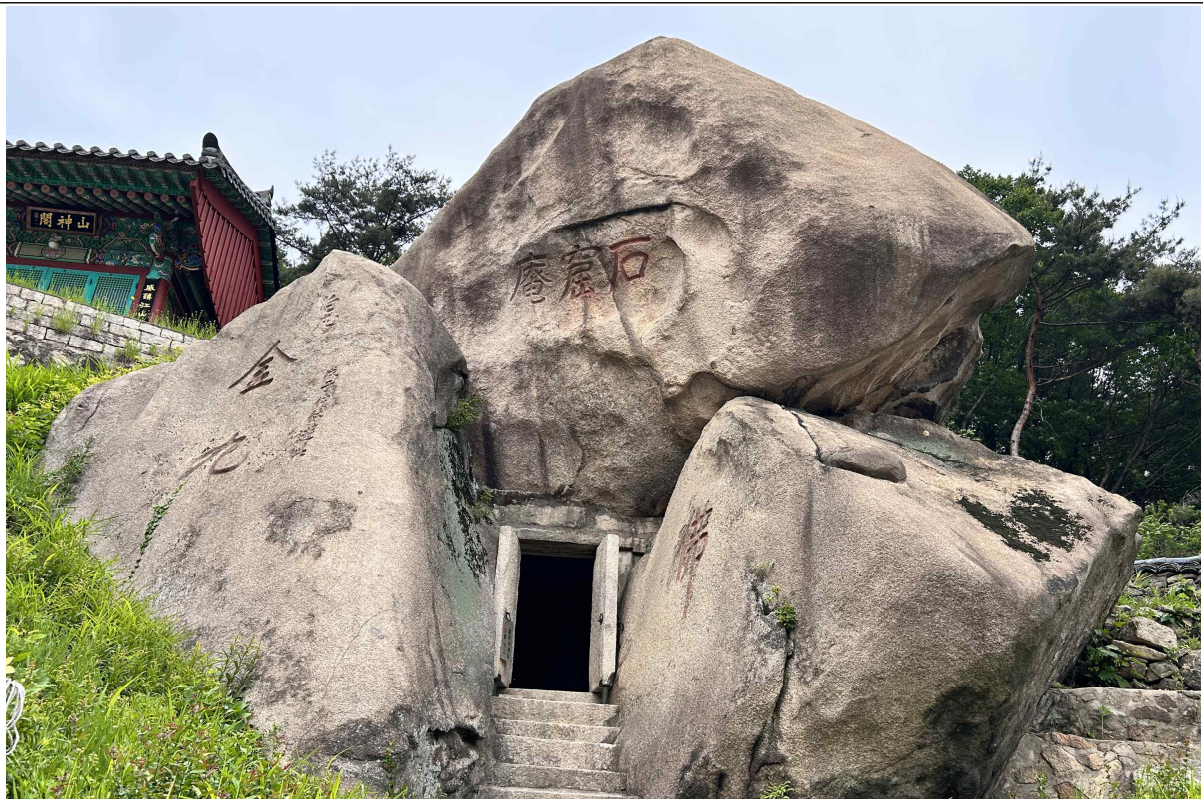
설명: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정상 일원 독립염원 바위글씨 3D스캔 조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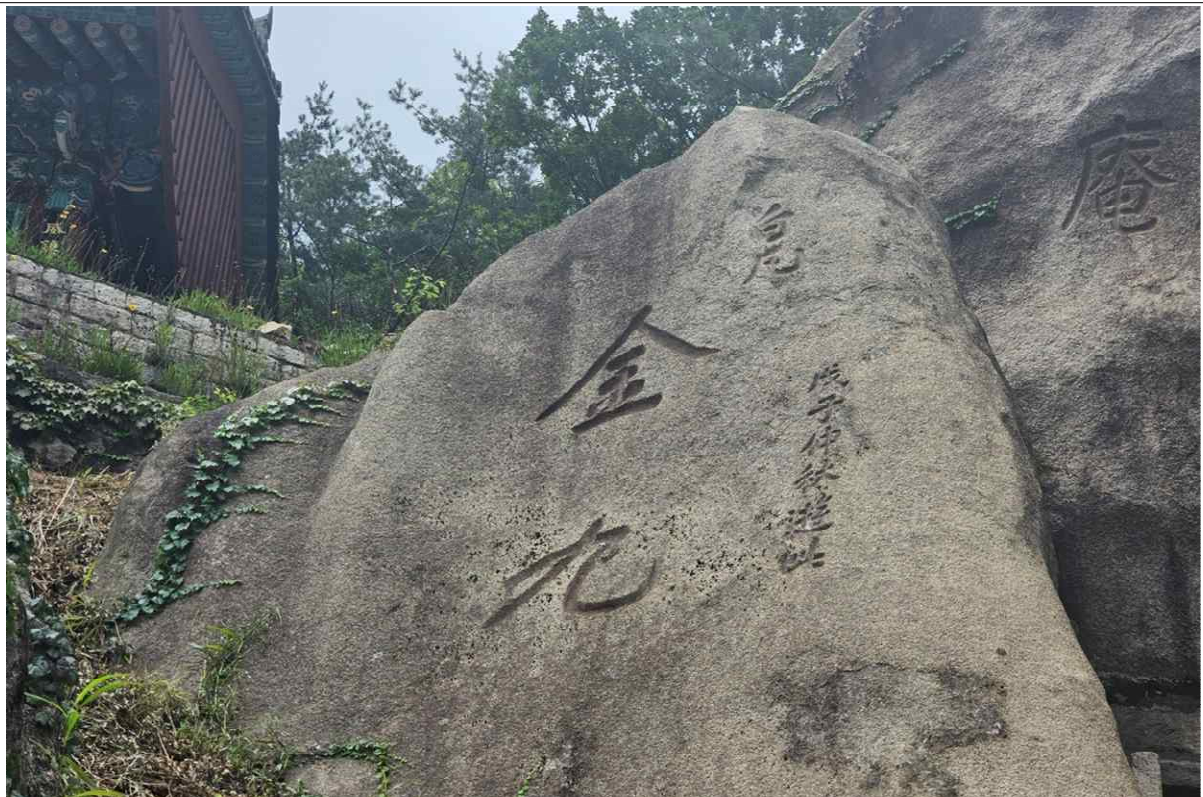
설명: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정상 일원 3:1운동 암각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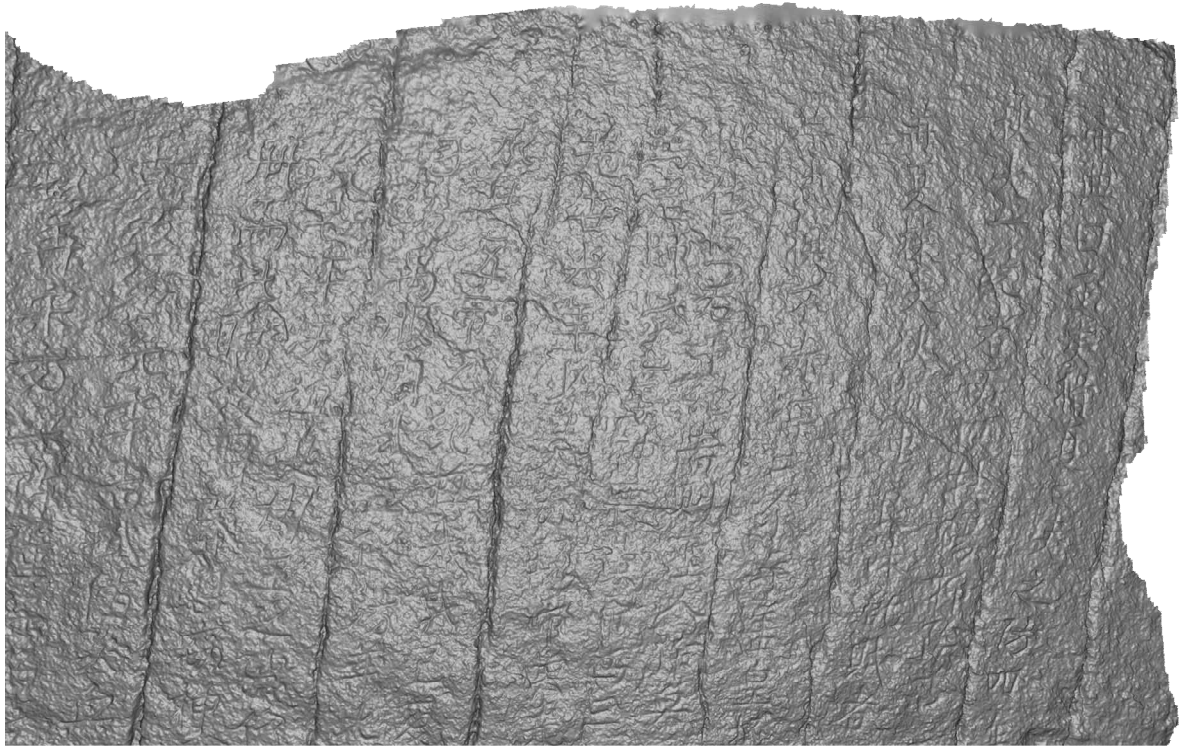
설명: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정상 일원 3:1운동 암각문 세부사진



설명: 북한산국립공원(의정부시 호원동 석굴암) 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전경



설명: 북한산국립공원(의정부시 호원동 석굴암) 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세부전경



설명: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일원 독립염원 바위글씨 3D스캔 조사 결과물



설명: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정상 일원 3·1운동 암각문 3D스캔 조사 결과물

○ 개 요

- 소 재 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천왕봉 하단)
- 수 량: 바위글씨 1기
- 조성연대: 1924년 7월 1일
- 규 모: 가로 4.2m, 세로 1.9m 자연석에 약 392자 각자

○ 내용 및 특징

이 글은 한말 경상도의 유학자 묵희(1875~1942)가 짓고, 권륜이 글씨를 써서 1924년 7월 1일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긴 것이다. 글자수는 모두 392자이다.

이 글의 요지는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의 대일통(大一統: 天王的 예악 문물이 널리 미쳐 천하가 하나로 크게 통일되는 세상)을 주제로 하여,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日帝)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다.

이 글에는 동아시아 역대 왕조가 일어났다가 망한 것을 간추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가 강점한 암울한 시대는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역사를 돌아본 것이다. 또한 단순히 역사를 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대로 전한 성인의 문명, 공자의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한말의 유학자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천왕으로 여기면서 ‘성인이 다스리는 문명국’이라는 자존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 ○ 천왕봉 바위글씨 원문

※ 참고 : ( ) 안에 쓴 글자는 앞 글자의 正字. (?)는 앞 글자 관독이 애매한 경우

帝典曰 蠻夷猾夏 二(夏)夷之防 明矣尙矣

春秋大一統者 乃以扶陽抑陰 尊王出伯(霸) 崇華夏攘夷狄 顯忠良誅亂賊者 此也 其尊崇黜(黜)攘 不亦凜二(凜)爾乎 盖皇極初國(?) 王才拱傳 摠若干紀(時) 則聖人作興 任天下而爲君師 此包羲神農黃帝 爲三皇之紀 摠先世幾年 少昊顓頊帝嚳堯舜氏 以惠相承 此之五帝之紀 摠幾歲已 夏后受舜禪 商湯續 禹服 周武王伐湯業 此三王之紀 摠幾世年 漢祖眦(?)周王之隙 仍起成帝 傳幾 世 而曹(?)瞞綴(?)羿莽 暫(?)竊神器 然昭烈仗義 克終 總幾年 晉武值炎興 綿 歷幾年 五胡亂華 宋齊梁陳 僅保名位 摠幾年 隋一 幾年 李淵父子 自發爲唐 傳幾世年 趙宋氏康紀 亦幾年焉 諸羯嚙宋 遂遇鐵木兒 蝕之焉 大明享天 傳 幾世幾年 然努(?)哈(?)赤(?)蝕之 庶(?)幾絕

嗚乎 天道 非耶 是耶 奈皇昊不振何 或將永曆之連續耶 然四海洪洞 百蠻(?) 跳梁 抑何(時)以定耶 且无乃六万來年 斯(?)入禽獸耶 曰今天地大閤閉 機枯 在何(?) 必復見獯戎狄(?)夷(?)大統 以烘(?)耀養(?)溢(?)之日也 然自不勝憤怨 瀝 血飲泣 陟此南嶽之天王 以寫(?)万世天王之統 嘻噫 悲夫

崇禎六甲子秋七月壬子朏 罔僕遺民

孤竹墨熙撰 花山權倫書

### ○ 개 요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백운봉 정상
- 구 분: 각석
- 조성시기: 근현대(3.1운동 이후 새긴 것으로 추정)
- 조 성 자: 정재용(1886~1976)

### ○ 내용 및 특징

북한산의 주봉인 백운대 바위에 위치한 바위글씨이다. 먼저 “독립선언기사(獨立宣言記事)” 하여 이 내용이 독립선언에 대한 사실을 기술했음을 언급한 뒤, “기미년(1919) 2월 10일 조선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은 경성부 청진정(淸進町, 현재 종로구 청진동) 사람인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니 경인년(1890)에 태어났다.”, “기미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만세도창한 것은 황해도 해주(海州) 수양산(首陽山) 사람인 정재용(鄭在鎔)이다. 병술년(1886)에 태어났다.” 라고 새겼다. 굳이 각 인물의 연고지와 출생연도를 기록한 것은 사람을 특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바위글씨의 사방모서리에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을 한글자씩 새겼다.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유교의 근간원리로, 3·1운동의 정신이 여기에 근거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해당 바위글씨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1919년 2월 10일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 최남선이고,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독립선언서를 대신 낭독한 인물이 정재용임을 밝힌 것이다. 아마 관련 내용이 잊혀지거나 다르게 와전될 것을 고려해 이렇게 각석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운대 산장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정재용 선생이 직접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개 요

-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89
- 구 분: 각석
- 조성시기: 현대(1949년 각석)
- 조 성 자: 남상도 외 7인

### ○ 내용 및 특징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사 북쪽에 위치하는 석굴암에 새겨진 바위글씨이다.

석굴암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겼던 은신처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에는 다시 찾아와 지난 시간을 되새기고 자연을 즐기던 곳이다.

석굴암은 자연 그대로 큰 바위 세 개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입구에 글귀가 적혀있는데, 김구 선생 친필 글씨이다. 글의 내용은 “석굴암(石窟庵) 불(佛) 무자(戊子)중추(仲秋) 유차김구(遊此金九)”(석굴암에서, 무자년 가을에 이곳을 찾은 김구)이다. 이는 1948년 석굴암에 방문한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을 받아 언론인 남상도 외 7인이 1949년 3월부터 3개월간 조각했다. 1949년 6월 26일 석굴암에서 명문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그날 서거하였다.